

30cm 낙차에 이동 어려워...살던 물고기도 사라졌다



물길 끊긴 魚道 생태계도 끊겼다

<2> 광주·전남 부실 어도 실태

“예전엔 물고기가 바글바글했는데 지금은 한 마리도 없어요. 어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 어떤 물고기가 올라가서 살 수 있었어요?”

곡성군 오곡면 덕산리에 사는 허인구(67)씨는 물고기를 찾으며 뛰놀던 어린시절을 회상하며 “지금 어도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어도는 하천을 따라 상·하류를 오가는 물고기의 회귀 본능을 가능하게 해주는 생태계 복원의 핵심인 프라인데, 설치율도 낮고 불량률도 높다 보니 물고기가 상·하류를 오갈 ‘길’이 끊기고 결국 물고기 수가 줄어들면서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다.

◇어도 설치 의무인데, 안 지키고=1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광주지역 어도 설치율은 전체 보 136곳 중 30곳으로 22.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남에서도 댐이 설치된 4778곳 중 953곳에만 어도가 설치돼 고작 19.9%에 그치고 있다. 어도 설치를 의무화한 관련법 개정 이전에 조성된 것을 포함한 수치지만 의무화된 이후에도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되면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어도도 적지 않다.

현행 내수면어업법(19조 2)은 하천의 흐름을 가로막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해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거나 어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이 지난 2005년 개정되면서 수산생물의 이동권을 보장해 수생 생태계의 단절을 최소화해야

■어도 설치 의무 안지켜

광주136곳 중 30곳 설치 22%
전남 4778곳 중 953곳 19.9%

■행정편의적 일괄 설계

유속·수위·어종 등 고려 않고 설치
수면 낙차 1.3m도...이동 불가능

■유지·관리마저 부실

곳곳 토사에 막히고 수풀 쌓여
사후관리 안되고 물 흐름 방해

한다는 취지를 담은 의무 규정임에도, 현실에서는 제대로 설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주먹구구식 설계... 이름만 ‘물고기길’=그나마 설치된 어도조차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유속과 수위, 하천의 지형과 어종 생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만 갖추는 식으로 만들어진 어도가 상당한데다, 사후 점검과 유지관리 체계도 부실한 형편이다.

농어촌공사가 파악하고 있는 기능을 못하는 광주·전남 ‘불량’ 어도는 114곳으로, 광주시 광산구 2곳, 장성 20곳, 해남 15곳, 순천 14곳, 강진 12곳, 담양 11곳, 화순 10곳 등이다. 곡성(57개)·구례(67개)·보성(7개)·장흥·나주(이상 3개)·영광·함평(이상 1개) 등지에서도 적지 않다.

현장 점검 결과, 물이 흐르지 않고 낙차가 30cm 이상으로 심하거나 구조물이 파손된 경우가 대다수였다.

곡성군 오산면 청단리의 보 중앙에 계단식 형태



순천시 서면 운평리(운평리8)에 설치된 불량 어도를 지난달 9일 주민 박종원(53)씨가 바라보고 있다(왼쪽). 인근의 운평리9 어도 출수부(물고기가 상류 하천으로 나가는 상류단)에 쓰레기가 쌓여있는 모습이다.



로 설치된 어도(강달 어도)는 물 흐름이 없고 수면 낙차가 1.3m에 달해 만약 물이 있다해도 어류가 어도로 이동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태였다.

곡성군 오곡면 덕산리 보에 설치된 2개의 어도(승법리3어도1·2)는 입구·출구 높이 차가 80~90cm에 이르고, 어도 일부가 파손돼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도 뿐 아니라 해당 보 배수구 역시 3개 중 왼쪽과 중앙의 배수구가 토사에 막혀 있고, 1개에서만 물이 흐르고 있었다.

영광군 영광읍 양평리의 어도(영광천1어도1)는 내부에 콘크리트가 가득 차있는 형식으로 설치돼 있었다.

◇관리도, 점검도 부실=경사도나 낙차 등 어도 설계가 제대로 됐더라도 돌로 막혀 있거나 수풀로 가득 채워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기능을 못

하는 어도도 많았다. 농어촌공사나 사군 등의 점검, 사후 관리가 부실하다는 얘기다.

순천시 서면 운평리 계단식 어도(운평리8)도 입수부가 돌로 막혀 있고 낙차도 심해 어류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인근에 사는 박종원(53)씨는 “어도가 있어봤자 무용지물이다. 수풀에 막혀 길이 될 리가 없다”며 “지금 시골 하천에서 물고기를 찾아보는 건 너무 어렵다. 살 길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오겠냐”고 말했다.

곡성군 입면 매월리의 어도(매월3어도1)는 토사와 수풀이 가득해 구조물 형태조차 알아보기 어려웠다.

순천시 주암면 창촌리의 어도(원어도1) 역시 내부에 물이 흐르지 않고 구조물 7개는 모두 파손돼

있었다. 또 물고기가 어도로 들어가는 입수부에 돌덩어리가 쌓여있는 등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

전문가들은 하천 생태계 단절 문제는 잘못된 설계와 관리 부실로 비롯됐다고 입을 모은다. 설치 당시 유속·수위·어종 생태를 고려하지 않고 형식만 따라 만든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이다. 이처럼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어도는 물고기의 회귀와 산란을 가로막으면서 결과적으로 어업 자원 감소와 지역 생태계 붕괴로 이어진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우리나라 하천은 유량, 어종, 계절 특성이 제각각인데 행정 편의적으로 일괄 설치된 어도들이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판사의 호통 “보건소장까지 해놓고 왜 구호조치도 안했나”

교통사고 내고 119 신고 안해 하천수 마시느라 20분 방치 사망 구형량보다 높은 금고 4년 선고

“2억원 돈 때문에 피해자가 살아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피고인 가족이 그렇게 당했다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11일 오전 광주지법 402호 법정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화순군 보건소장 A(64)씨를 향한 장관수 부장판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밤 10시께 화순군 화순읍의 화순천을 가로지르는 한 굴다리에서 차를 몰고 가다 B(당시 5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교통사고를 내고도 119에 신고하는 등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인근 화순천으로 가 하천수를 마시는 등 20여분간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한 혐의를 받았다.

장 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해 금고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의 구형(금고 3년)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A씨는 피해자에게 2억원을 공탁했으나,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며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면서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질 각오는 돼 있으나, 죄송하다는 말로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지적했다.

B씨는 가족의 신고로 사고 발생 20여분만에 응급 조치를 받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3일 뒤 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하천 물을 들이키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는 점에서 음주운전 의심을 받았으나,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애초 A씨를 유기치사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A씨의 이상 행동과 B씨의 사망 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교통법으로만 기소했다.

재판부는 “지자체 보건소장까지 역임한 피고인이 골든타임 내에 119 신고를 하지 않고 마시기에 적절하지 않은 하천물을 마시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결과 피해자 병원 이송이 늦어져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졌다”며 “유족이 현재까지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B씨 유족들은 국회전자청원에 ‘교통사고 후 피해자 방치로 인한 사망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을 제기한 상태로, 해당 청원은 11일 기준 5만 1021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곡성서 교통사망사고 낸 70대 운전자 사고 수습 중 119구급차에 치여 사망

곡성에서 70대 운전자가 트랙터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뒤, 사고 수습 과정에서 구급차에 치여 숨졌다.

11일 곡성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20분께 곡성군 곡성읍의 17번 국도 왕복 4차선 도로 2차로에서 A(73)씨가 119구급차에 치였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 직전 A씨는 앞서 가던 B(55)씨의 트랙터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트랙터가 전도됐으며 B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차량에서 나와 도로에서 현장 수습 조치를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차에 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동승자는 차에 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9구급차 운전자 C(41)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변이 어두워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지점은 직선 도로로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은 없었으나, 도로변에 가로등이 하나도 설치돼 있지 않고 주변에는 발밭에 없어 어두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그린프리미엄 알로에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를 입니다.